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안심참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안심참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안심참다

완성된 이름

안심참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안심참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남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

요약 연대표

표기	17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안심잔다				
안심참다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남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

문헌의 첫 기록

17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안심찬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

☞ 안심찬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안심찬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안심찬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안심참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안심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안심참-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안심찬다
17세기20세기
- 안심참다



안심참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안심참다’의 옛말인 ‘안심찬다’는 17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안심찬-’은 동사 어간 ‘안심흐-’와 어미 ‘-지’가 결합한 ‘안심흐지’에 동사 어간 ‘아니흐-’가 결합한 ‘안심흐지 아니흐-’의 준말로서 마지막 음절의 ‘ㅎ’이 탈락한 표기이다.

🔗 표기 방식과 특징

19세기에 ‘ㅎ’을 표기한 ‘안심참-’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안심참다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7세기 안심찬-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안심찬-

출처 1617 진주하씨묘출토연간 132

용례 01

66 문헌 용례

하 용심후오니 이런 안심찬인 일 업소오이다.

㉮ 현대어 풀이

많이 용심하오니 이런 안심찬은 일이 없습니다.

19세기 안심찬-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안심찬-

출처 1896 국한회어 곤:204

용례 02

66 문헌 용례

안심찬타 [不安].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자전 PART I :8

용례 03

66 문헌 용례

안심찬타 [不安].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안심찬-, 안심찬-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안심찬-, 안심찬-

출처 1934 조선일보 3월 30일 조간 3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로파는 안심찬은 듯이 중의 얼굴을 뻗히 쳐다본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7 조선일보 4월 21일 조간 3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인숙은 안심찬은 표정으로 잠간 창규를 마주보고 있다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7 조선일보 5월 22일 석간 8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로파는 큰 솟테다 불을 때다가 메뉴리를 쳐다보고 안심찬케 말한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안심찬다 관련 낱말



- [안심하다](#)동사걱정 없이 마음을 편히 가지다.관련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기](#)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안심찬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안심잡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不 뜻·음 아닐 불
총 4획 · 부수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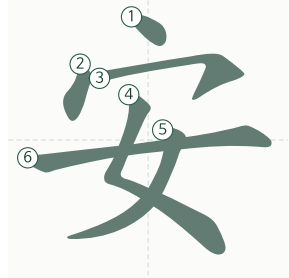


不

획순 자료 미제공

hanja.wordrow.kr/한자/不/

安 뜻·음 편안 안
총 6획 · 부수 宀



hanja.wordrow.kr/한자/安/